

자료 1 거란의 침입과 격퇴



자료 2 강화도

- 강화도는 해안의 지형이 험해서 적이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도읍인 개경에 가까워서 방어하기에 좋은 군사적 요새였습니다.



자료 3 공민왕의 영토 수복



1 거란의 침입과 극복 과정 자료 1

1차 침입	서희는 거란 장수 소손녕과 담판을 벌여 거란을 물러나게 하였고, 강동 6주에 성을 쌓아 영토를 압록강까지 넓혔음.
2차 침입	고려는 개경이 함락되기도 하였지만, 물러가는 거란군을 양규가 크게 물리쳤음.
3차 침입	강감찬은 전세가 불리해져 후퇴하는 거란군을 추격하여 귀주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음(귀주 대첩).

2 여진의 위협과 극복 과정

- 고려와 여진의 관계 : 여진은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다가, 세력을 넓혀 고려의 국경을 자주 위협하였습니다.
- 여진 정벌 : 윤관은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물리친 뒤 9개의 성을 쌓았습니다. → 여진족이 돌려주기를 청하고, 계속된 침입을 막아 내기도 어려워서 결국 9성을 돌려주었습니다.

3 몽골의 침략과 고려의 저항

- 고려 안팎의 상황 : 고려에 무신 정권이 들어서고 무신들이 권력 다툼을 벌이는 사이에 나라 밖에서는 몽골이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성장하여 고려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 몽골의 침략과 고려의 저항

1차 침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려의 군사와 백성들이 귀주성에서 몽골군의 공격을 막아 냈음. 무신 정권은 도읍을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기고 몽골과 싸울 준비를 하였음. 자료 2
2차 침략	고려 백성들이 처인성에서 크게 승리하였음.
3차 침략	죽주성에서 몽골군을 물리쳤음.

- 개경 환도 : 몽골과의 오랜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해지고 문화재가 불타는 등의 피해를 입은 고려는 몽골과 화친을 맺고 몽골의 요구대로 도읍을 다시 개경으로 옮겼습니다.
- 삼별초의 항쟁
 - 삼별초는 근거지를 강화도에서 진도로 옮기고 남해안 지역에서 세력을 떨쳤습니다.
 -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게 진도가 함락되었고, 다시 제주도로 옮겨 항쟁하였으나 결국 진압되었습니다.

4 공민왕의 개혁 정책

- 몽골식 풍습 폐지 : 당시 유행하던 몽골식 옷이나 머리 모양 등의 풍습을 버리고 고려의 전통을 되살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 영토 회복 : 원이 빼앗은 고려의 땅을 되찾아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자료 3